



신년특집 ① · 병술년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을 듣는다

육 계

육계자조금, 육계산업 발전의 단초

양계업계의 어려움이 더해지는 가운데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설계에 앞서 어제를 뒤돌아 볼때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각오를 해본다.

2003년 11월부터 2004년 봄까지 양계산업을 초토화시킨 AI(조류인플루엔자) 파동이후 소비자들이 닭고기를 외면하는 바람에 소비가 큰 폭으로 떨어져 많은 농가들이 업을 포기하거나 입추를 하지 못하고 발만 구르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태국 등 주요 닭고기 수출국들로부터 수입이 중단되고, 소비자들의 닭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무너진 생산 기반과 의욕을 상실한 우리 양계농가들의 상처를 재물로 양계산물의 가격은 회복되었고 일년 반동안 가격의 고공행진은 계속되면서 양계산업의 유례없는 호황을 맞기도 했다.

영원히 그렇게 이어질 줄 알았을까? 우리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살아나 무한정 수수 늘이기 경쟁이 계열사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자금수급안정위원회의 이름으로 발표한 모든 수급안정책은 모두 탁상공론으로 끝나고 급기야 지난 여름 북경기 성수기를 정점으로 생산비 이하의 가격이 형성되면서 예고된 양계인이 만든 불황이 시작되기 시작하였다.



장 재 성
육계분과위원장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 격인가? 10월부터 터져 나온 외국의 AI(조류인플루엔자)발생 사례들이 우리 언론을 타고 무려 두 달 가까이 8,000여회에 걸쳐 방송, 신문, 등 각 언론 매체를 통해 소비자의 마음을 AI공포로 몰아넣었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한 양계산물의 소비는 극감하였다.

사육농가를 앞세운 정부 및 각 단체들의 소비홍보 운동은 연례행사처럼 이어졌다. 과연 그 소비홍보운동이 얼마나 효과를 보았을까? 올분이 터진 사육농가들은 전국 각지에서 사비를 써가며 11월 24일 1,200여 농가가 여의도로 몰려가 업계의

자성과 관계당국의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열었다.

우리 육계인은 여기서 많은 것을 깨우쳤을 것이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육계농가의 심정은 너무나 어렵다. 천정부지로 올라간 연료비, 내년 봄까지 이어질 각종 질병과의 싸움, 아직 끝



나지 않는 AI공포가 전국 육계 사육농가의 가슴을 억누르는 가운데 지난해 사상 유례없이 늘어난 종계 생산 잠재력도 우리 육계인이 슬기롭게 풀어야 할 과제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10월 AI 언론보도와와의 전쟁 중에서도 우리는 소중한 업계를 발전시킬 단초를 만들었다. ‘육계자조금준비위원회’가 전국의

70여 선거구에서 135명의 우리 육계인 대의원을 우리 손으로 선출하였고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 또한 크다. 이번에 선출된 전국의 대의원들은 계열사와 사육농가가 공생 공존 할 수 있는, 진정한 육계산업의 발전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생각하는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우리 대한양계협회와 전국 육계 사육농가는 다함께 진심으로 경축하며 육계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전국의 육계사육농가 여러분! 우리도 이제 지난여의도 집회를 통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동안 우리의 응집력도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문제점을 남의 손에 맡겨 휘둘려온 지난과오를 새해부터는 절대로 답습하지 맙시다. 우리 유일한 생산자 단체인 대한양계협회와 함께 뭉쳐 지혜를 모은다면 병술년 새해에는 좋은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전국의 육계인 토종닭 사육농가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양계**

“

이번에 선출된 전국의 대의원들은 계열사와 사육농가가 공생 공존 할 수 있는, 진정한 육계산업의 발전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생각하는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